

# 老부부가 담아낸 시대의 상흔, 인생 이야기

# ‘花’...자연의 빛깔을 머금다

장용림 개인전, 오는 11일까지 예술의전당 갤러리

## ‘아버지, 엄마의 오월이야기’展...13일까지 갤러리생각상자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 전쟁을 겪으며 일곱 번의 기적으로 살아났으니, 나는 강한 생명력을 가진 집초와 같다. 황무지에서 자라는 잡초처럼 끈질긴 생명력으로 핀 꽃. 덧없는 인생 같지만 나는 진실하게 살았고, 가난했지만 사람들을 돕고 함께 살아왔다...돌아보니 잡초였던 내가 이제는 아름다운 한송이 큰 꽃이 되었다.”



‘아버지, 엄마의 그림책 오월이야기 전시’에 서 만난 주대재 씨

- 저자 주대재 그림책 중 광주 근현대사의 질곡을 품은 그림책 원화전 ‘아버지, 엄마의 그림책 오월이야기’가 마련됐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광주 동구인문학당에서 진행된 ‘어르신 글쓰기 자서전 교실’ 결과물인 그림책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자서전 교실에 참여한 주흥 갤러리생각상자 관장의 아버지, 어머니가 쓰고 그린 그림책이 전시로 다시 재구성된 것.

6·25 전쟁과 5·18민중항쟁 등 시대의 아픔을 지니 온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인생을 실감 나는 그림으로 묘사해냈다.

전시장에서 만난 그림책 ‘잡초 속에서 피어난 꽃 민초’ 원화에는 생생한 한국 근현대사가 담겨있었다. 일제강점기 태어나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무시당한 어린 날의 기억부터 함경북도 아오지탄 광에 징용됐던 아버지를 따라 이산한 일, 12살 나이에 해방을 맞아 석탄 운반 기차에 콩나물처럼 실려 고향 광주로 돌아오던 길, 6·25전쟁 시기 인민군에게 붙잡혀 극적으로 살아남은 경험과 5·18 광주시민들의 소리치던 목소리까지...

지나온 시대 속 크고 작은 아픔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저자의 생생한 인생 이야기를 엿볼 수 있었다.

저자 주대재(90) 씨는 “우리나라 아픈 역사 속 역경을 딛고 일어난 이 시대의 민초들의 이야기라 생각한다”며 “그림책 만들기에 참여하면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 전시장에서는 장은자(85) 씨의 그림책 ‘나는 육남매의 엄마다’ 그림도 줄줄이 내걸려 있었다.

화순 남면 벽송리에서 태어난 어린 시절 일제강점기를 겪은 장 씨는 결혼해 광주 학동에서 육남매를 낳고 남광주 시장 근처에서 음식 장사를 했다. 가난한 살림이지만 자식들에게는 항상 나누며 사는 삶을 가르쳤던 그의 일생이 고스란히 담겼다.

전시장 한편에서는 주대재 씨가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손수 작성한 붓글씨를 관람객들에게 나눠주는 공간도 조그맣게 마련돼 있다.



주대재 씨의 그림책 ‘잡초 속에서 피어난 꽃 민초’ 원화



정은자 씨 그림책 ‘나는 육남매의 엄마다’ 원화

주흥 관장은 “두 분의 그림과 뽀뽀하게 쓴 글을 읽고 이들의 삶이 대한민국 민중의 근현대사를 품고 있다고 느꼈다”며 “가까운 분들에게 오히려 묻지 않았고 몰랐던 광주와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된 소중한 시간들이었다”고 소회했다.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갤러리생각상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최명진 기자

봄날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계절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피고 지는 꽃들을 화폭에 담아낸 전시가 마련됐다.

장용림 작가의 ‘저만치 꽃이 온다’전이 오는 11일까지 광주 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장 작가의 열 번째 개인전으로, 이른 봄을 알리는 매화꽃부터 연보랏빛 오동꽃, 새하얀 목화꽃 등 다채로운 꽃을 표현한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저만치 꽃이 온다’라는 주제는 김소월의 시 ‘산유화’에서 ‘산에/산에/피는 꽃은/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라는 구절에서 비롯됐다.

아주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저만치 거리에서 천천히 피어나는 꽃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마음을 담고 있다.

꽃을 소재로 다루는 작가는 아름다



‘저만치봄매화가피고’

은 자연의 빛깔을 내기 위해 분채와 석채 등으로 여러 번 중첩해 색을 올린다.

눈꽃송이를 닮은 목화꽃, 달항아리에 가득 담긴 오동꽃, 고목에서 피어난 홍매화 등을 청아하고 차분한 색감으로 표현하며, 정교한 묘사와 여백으로 여유를 느끼게 해 보는 이로 하여금 다양한 심상을 끌어낸다.

작가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꽃은 핀다는 희망과 내일을 꿈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 눈부시게 아름다운 섬진강(11)

### 노의영의 캐버스(산책)



순창, 남원, 곡성을 지나면서 수줍게 흐르던 섬진강은 지리산을 만나 비로소 어른스러워진다. 강폭도 한결 넓어지고 군데군데 아름다운 백사장이 만들어 놓는다. 은어와 참개, 재첩, 수달을 자식처럼 키운다. 구레 사람들에게 지리산이 아버지라면 섬진강은 포근하고 자애로운 어머니다. 섬진강을 만나러 가는 길은 언제나 즐겁다. 발원지인 진안 데미샘을 찾아갔을 때는 하얀 구름이 팔공산을 덮고 있었고 섬진강이 바다와 만나는 망덕포구에 이르렀을 때는 다양한 꽃들과 석양이 어우러져 있었다. 섬진강에서 여러 모습을 만나게 된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다. 섬진강은 보면 볼수록 묘

하고 아름답다. 사람으로 치면 청순함이 철철 넘치고 음식이라면 ‘게미’가 있다거나 할까, 오염되지 않은 생태계, 곳곳에 숨겨진 비경은 성형이나 화장을 하지 않은 산골 처녀의 모습 그대로이다.

섬진강이 5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섬진강은 우리나라 5대 강 중에서 가장 맑은 물이 흐르는 생태계의 보고다. 주변의 문화와 역사 또한 유서가 깊다. 섬진강에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아야 할 이유다. 설령 어떤 조성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섬진강의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과 범위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햇빛 쏟아지는 섬진강에 은어가 펄떡이며 뛰놀다. 재첩과 민물참개도 못 잡겠다는 듯 우글거린다. 온갖 생물들이 저희를 세상인양 고개를 들이민다.

무엇하나 부족할 것 없는 섬진강가에 흰 모래가 햇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난다. 이 아름다



‘섬진강구름천사’

운 섬진강을 보존하고 가꾸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해야 한다. 이리 주고 저리 주고도 불평하지 않고 흐르는 강, 섬진강을 따라 걸어 보면 알게 된다. 어찌서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답다고 하는지, 어찌서 우리에게 소중한 강인지를...

(망덕포구에서 화가노의영)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찾아가는 전시’ 개최

## 30일까지...파주 한반도생태평화관센터 '다시, 6·15의 길을 묻다' 주제 사진전 선배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은 4일 “김대중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 관람객들이 김대중기념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 및 업적을 알 수 있도록 ‘찾아가는 기념관 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기념관’은 타 지역 유관기관에 직접 찾아가는 전시로, 총 2회 운영된다. 먼저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소재 한반도 생태평화 종합관광센터에서 ‘다시, 6·15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일궈낸 민주주의 평화에 대한 노력과 철학을 알리

기 위해 6·15 남북정상회담 3일 간의 기록이 담긴 사진 34점을 전시한다. 또 9월과 10월 중에는 청남대(충북 청주시)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소탈한 일상이 담긴 일상전을 개최해 친근한 유대감을 형성할 예정이다. 김두복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장은 “이번 찾아가는 기념관 전시를 통해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노력 그리고 생전 대통령의 소박하고 인간적인 모습이 더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표=정해선 기자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 파라드시티

헬스

14일동안 CALORIE BAR  
Lounge for Diet & Detox car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140RYS FITNESS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다움 상가 2층

광주

# SKY GARDEN

애견카페 & 애견운동장

사랑하는 반려 동물과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카페 내부

카페 내부 정면

하늘정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동 684-4 Tel. 062) 714-2898